

우연한 사건이 만든 필연적 서사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

손진
이손건축 대표

개요

설계	이손건축, 손진
설계담당	김보령, 박한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유미
CI	스튜디오 프론트도어
위치	군산시 영화동 17-11, 17-15, 17-39
용도	숙박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886.50m ² , 557.40m ² , 434.70m ²
건축면적	633.52m ² , 389.07m ² , 284.02m ²
연면적	1442.72m ² , 389.07m ² , 284.02m ²
규모	3층, 1층, 1층
주차	11대, 2대, 1대
높이	13.20m(옥탑 16.94m), 5.73m, 5.68m
건폐율	71.46%, 69.80%, 65.34%
용적률	162.74%, 69.80%, 65.3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연와조
외부마감	타일, 미장, 목재, 콘크리트
내부마감	타일, 미장, 목재, 석재
구조설계	센구조
시공	승명건설
조경	케이엔엘, 조경상회 스튜디오 엘
기계/전기	코담기술단
설계기간	2019.6.3.~2021.5.28.
시공기간	2021.6.3.~2025.7.11.
준공	2025.7.18.
건축주	공유인 유한회사(송성진 외)

©김종우



위에서 바라본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의 공간

고심 끝에 해당 적산가옥들의 존재가
군산이라는 도시의 태생적 근간이기에
보존의 이유는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신 존재는 유지하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입을 하여 미래로 던져지는
제3의 형상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라운드 호텔(ground hotel) 형식의 리터닝 군산



©인종오

새로운 도시 형상



©인종오



©인종오



©인종오

상 그라운드 T
 중 피제리아 델 캄포의 외부 공간
 하 바 인그리드



©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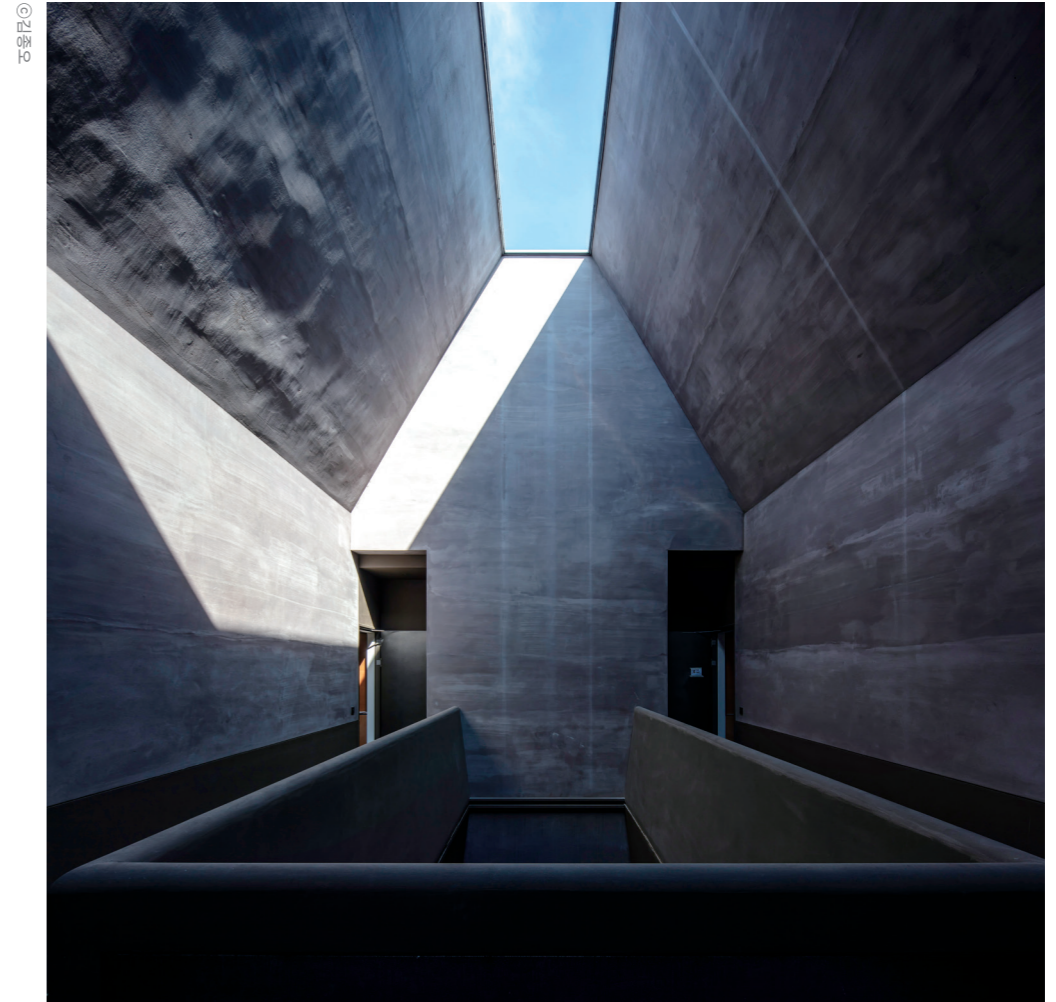


©김종오



©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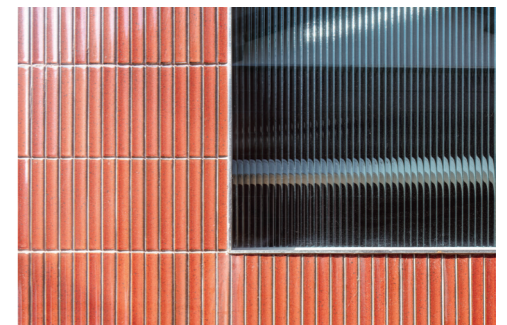
상 재즈클럽 머디
하·좌 재즈클럽 내부 공간
하·우 재즈클럽 머디의 재료



©김종오



©이순건축



©김종오

상 호텔 아트리움의 시멘트 마감
하·좌 헤링본 형태로 깔린 적벽돌 바닥
하·우 외벽에 쓰인 붉은 타일

그라운드 바닥은 적벽돌을 헤링본(herringbone)으로 깔되 줄눈의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 석분을 채워 깊이를 더하였다. 그라운드 지붕의 집합적 형상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인 바, 지붕선들은 예리하고 면은 평탄하며 질감은 거칠어야 하였다.



© 리빙인

그라운드 T와 그라운드 □

소도시를 바라보는 눈

최근 발매된 소설가 황석영의 <할매>는 군산 회현면 미군기지의 한쪽 끝에 남아 있는 팽나무를 통해 600년의 시간대와 호주에서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공간대를 아우르는 장대한 서사를 짧게 압축한 작품이다. 한 그루의 팽나무라는 물리적 실체 안에 내포된 깊은 시간과 넓은 공간이 어떻게 성찰되고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지에 대한 한 작가의 노력으로 읽힌다.

군산은 수많은 중소도시들 중 하나이다. 강화도조약에 의해 1899년 개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그루의 팽나무가 태어나기 위해 한 마리의 개똥지빠귀가 저 멀리서 뱃속에 넣어 온 씨앗을 그 장소에 떨어뜨린 장면과 유사할 수 있다. 도시 탄생의 연유가 명확한 역사적 흐름의 한 지점을 지시하고, 그 도시의 틀 또한 분명한 유형적 필연성을 띠고 있다.

금강 하구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의 형상은 이미 격자형 도시의 틀을 암시하고, 7m에 달하는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는 ‘뜬다리’라는 특수한 접안 시설을 요구한다. 이는 군산의 물리적 틀을 규정하는 지형적·역사적 전제들이다.

로마인들이 지중해 주변의 식민지들에 도시를 세울 때 고려하였을 현실적 전략과 궤를 같이하지만, 그 전형적인 격자 모양의 틀에 담겨 있던 좀 더 복잡적이고 도시적인 체계가 단순화된 형태일 뿐이다.

사건

S는 서울에서 요식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에 귀향하여 군산 남쪽 은파유원지 변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연 사업가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이 2019년이니, 군산에 이미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무렵이었고, 시내에 재즈클럽을 하나 열고 싶어 하던 꿈을 실현할 시점이 그때였다. 그때는 우리나라 소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가장 고점을 찍은 시기로, ‘도시재생’의 열풍이 시작된 몇 년 후의 지점이기도 하였다.

그 시점에 구도심의 한 장소를 찍은 것은 사건이라 불릴 만 하였다. 찍은 자리에는 8개의 점집이 들어서 있었고, 대개 쇠락의 끝 지점에 자리 잡게 되는 점집들의 특성상 그 거리의 풍경은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서나 날 법한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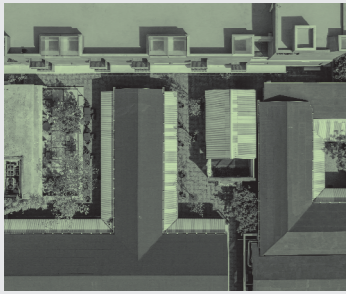
© 리빙인



상 위에서 바라본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의 공간
하 그라운드 호텔(ground hotel) 형식의 리터닝 군산



© 김경민



상 새로운 도시 형상
하 그라운드 T와 그라운드 □

공공 자본이 투입되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암중모색하고 있을 때, 민간인이 구도심의 이런 곳에서 사업을 벌여 보겠다고 나서는 일은 분명 하나의 사건이었다.

동료들

S가 군산에서 10년 동안 운영하여 이제 꼭 가봐야 하는 장소가 된 레스토랑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사람이었다.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몇몇이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기로 한 것은 단지 그들이 돈이 많아서만은 아니었다. 다섯으로 시작한 동료가 하나씩 늘어 여덟 명이 되는 시간은 거의 프로젝트의 완성 기간과 일치하였다. 먼저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전체 방향 설정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상의 결정들은 S에게 일임하였다. 동료들은 새가 날기 위한 바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다.

일본 도시의 잔재, 미군의 흔적

2019년 2월 16일이었다. 그날은 S가 며칠 전 전화를 하여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진행된 일들을 설명한 후 “한 번 내려와 사이트를 봐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내려온 날이었다. 겨울의 차가운 햇볕이 온기를 띠어 가는 계절이었지만, 사춘기처럼 어설픈 날이었다. 점집들 사이의 녹슨 철문을 비집고 들어가 좁은 골목을 통해 안마당으로 들어서자 느슨하게 넓어진 공간이 이어졌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전거며 향아리들, 깨진 화분 같은 것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장옥(나가야)과 정옥(마치야)으로 주로 구성되었던 격자형 도시 구조 중 정옥의 리(우라), 즉 도로에 접한 상업 공간이 아닌 가장 사적인 공간, 리(우라)에 들어온 것이다. 이 공간은 “일제강점기 동안 유지되다가 해방 이후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빠르게 소멸되었다”라고 쓴 이치훈 소장의 말대로*, 불법 건축물들로 가득 채워진 리 중 가까스로 남아 있는 퇴화 기관 같은 공간이었다. 이 퇴화된 공간을 다시 살려 내어 사적 영역이었던 곳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면 흐름이 생기고 피가 다시 돌 수 있을 것이라

* 이치훈. (2025.9.). [CRITIQUE] 군산 사용법. SPACE, 69.

고 생각하였다. 격자 블록 내부에서 에너지의 잠재력을 찾아내어 도로 쪽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판단도 섰다.

도로변을 따라 1950년대 미군들의 유입으로 형성된 연와조 파사드는 일제강점기의 목조 건축에 덧대어진 또 하나의 강한 커로서, 전후 미군 비행장이 들어선(1953년) 이후 형성된 이 장소(영화동)에 전반적으로 자리하여 군산의 근대를 말해 주는 의미 있는 형상이었다. 이 형상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보전되어 시간의 켜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하였다. 향후 프로젝트의 중요한 지침이 된 이 두 가지가 첫 방문에서 얻은 영감이었다.

리터닝(returning), 디어 파라디소(dear paradiso)

S가 원도심에 내고 싶어 하던 재즈클럽은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담은 것이었다. 우리는 꽤 긴 시간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매달렸고, 재즈클럽 하나만으로는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 내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좀 더 많은 시설이 복합적인 형상을 만들어야 돌아올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었다. 블록 내의 필지 구입이 추가로 필요하였고 프로젝트의 규모는 늘어났으며, 급기야 호텔까지 추가되어 50m×65m 크기의 한 블록을 거의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부분 철거 전, 먼저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으로 담아 놓기로 하고 포토 스캔과 3D 스캔을 진행하였다. 모든 과정의 시작은 기록이어야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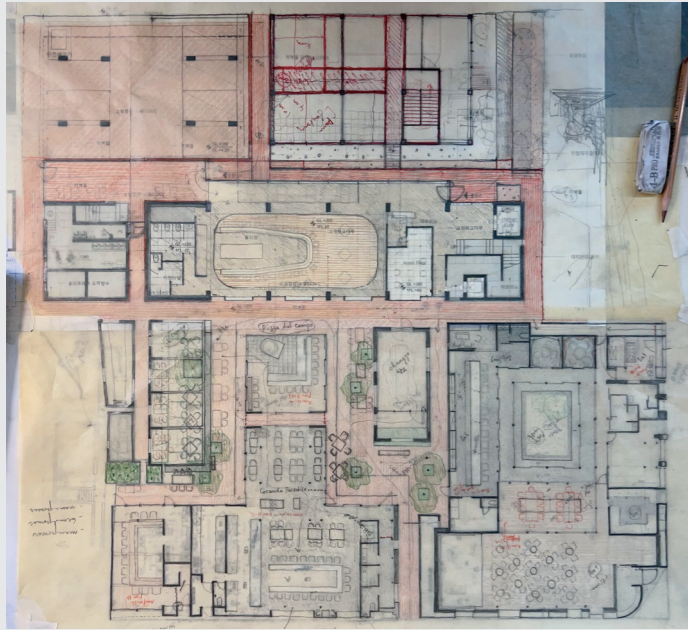
내외부의 마감들을 걷어내고 마당을 채우고 있던 몇 개의 불법 시설물들을 숨아 내자 적산가옥의 속살이 드러난 것은 2019년 7월이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하였다. 비워진 공간 전체를 아울러 5인의 작가(사진, 영화, 회화, 설치, 건축)들이 섭외되었고, 그해 11월 일주일 동안의 전시가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재즈클럽으로 점지된 공간에서 재즈 및 국악 공연 역시 기획되었다. 비워진 도시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자는 염원이 담긴 제법 시끄러운 한편의 푸닥거리였고, 제목은 디어 파라디소(dear paradiso)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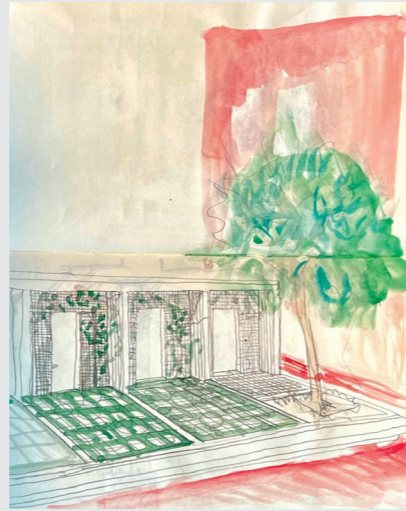
© 김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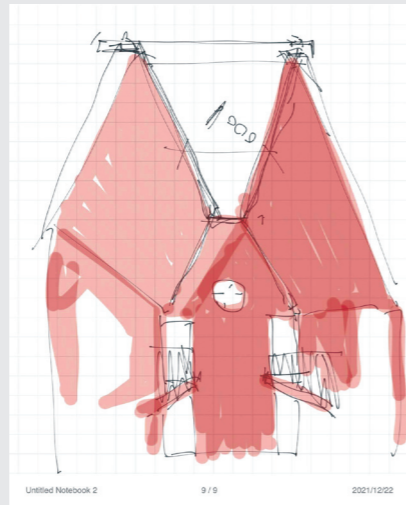
상 그라운드 T
하 바인그리드



리터닝 군산 스케치



©이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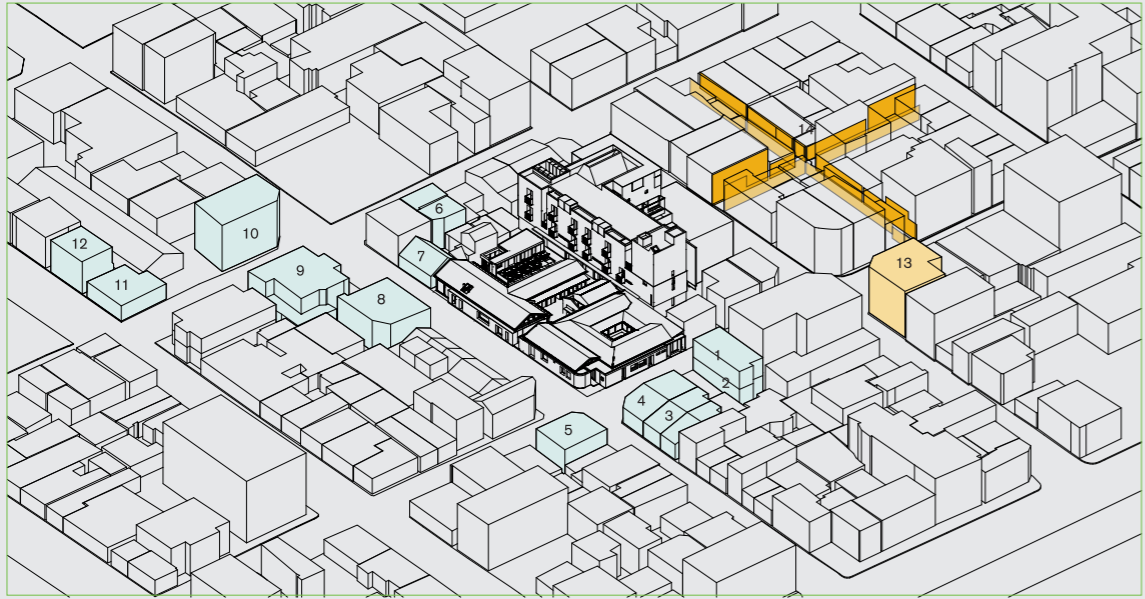


문제들

1차로 내외부의 거친 마감들을 철거하자 목조의 속살이 드러났다. 대들보에서 떼어 낸 상량판에는 1922년이라 쓰여 있었고, 목수의 이름은 임요한이었다. 이제 막 100년이 넘는 건물들이었던 것이다. 민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격조를 논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들보를 포함한 몇 가지 큰 부재들을 제외하고는 남겨 둘 만한 부재가 없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전체 구조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을 감수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겠냐는 것이었다. 레트로의 감성을 추구하며 생명력이 다한 건축의 형상을 활용할 수는 있었겠으나, 물리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고심 끝에 해당 적산가옥들의 존재가 군산이라는 도시의 태생적 근간이기에 보존의 이유는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껏 100년을 견뎌 왔으니 적어도 향후 100년의 물리적·유형적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 대신 존재는 유지하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입을 하여 미래로 던져지는 제3의 형상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부재를 해체하고 장수의 공장으로 옮겨 새로운 부재로 갈아 끼운 다음, 현장에서 재조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는 사이 해당 건물들의 기초를 콘크리트 매트 기초로 다져 놓는 일을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보존(conservation)보다는 보전(preservation)이라는 어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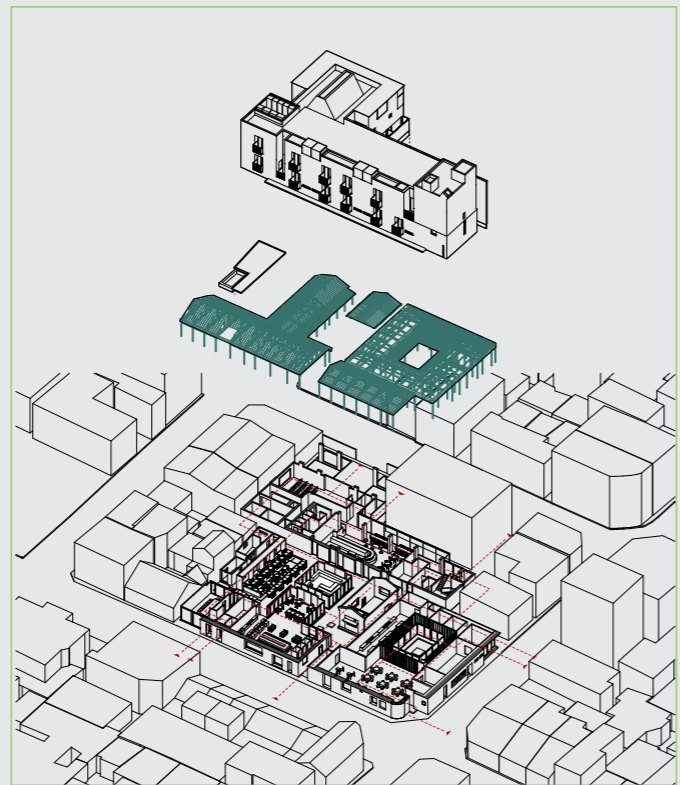
두 번째 문제는 시공사의 선정이었다.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비슷한 형식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공히 맞닥뜨리는 문제이다. 실력 있는 시공사는 주저하고, 지방 권역에서는 우리가 상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결국 서울의 실력 있는 시공사에 사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순조롭지 못해 중간에 타절(打切)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직영이었다. 이는 공기와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품질이 향상된 원인이었다. 관련된 많은 이들의 긴밀한 협동과 열정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순건축

도시 주변 다이어그램

1. 공유인 유탄회사
2. 명궁칼국수 - 노포
3. 프레스테이
4. 프로파간다 - 출판사 / 그래픽숍 - 서점
5. 디오션뮤직 - 음악레이블 / 엘까미노 스테이
6. 소이바이셀 - 퍼퓸숍
7. 멜로우아웃 - 바버숍
8. 패션숍 / 교야 스테이
9. 동네 어린이집
10. 오카도 - 사진작업실
11. 스테이
12. 오후우스
13. 로컬라이즈
14. 영화시장



©이순건축

엑소노메트릭

법규의 문제는 그다음 더 큰 비중으로 다가왔다. 리터닝이 속한 구역은 1987년 방화지구로 지정되었고, 2017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설정되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의 골자는 건축물 증·개축할 때 목구조만 사용하는 것이다. 서로 상충하는 규제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불법으로 하든지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공사의 끝 무렵에 대두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방화지구를 해제하는 것밖에 없었다. S가 군산에서 구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화지구를 해제하는 데 꼬박 1년이 소요되었다. 리터닝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해당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향후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여러 도시에서 짚어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예산, 낭만채권단

프로젝트의 후반부에 접어들자 늘어난 공기와 품질 향상에 쏟아 부은 비용 탓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방화지구 해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S는 이제껏 주변에 구축해 온 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40명의 친구들에게 2,000만 원씩을 빌려 8억 원을 만들기로 하였다. 빌렸다는 표현보다는 각출하였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들은 흔쾌히 또는 어렵사리 그 돈을 마련해 주었고, 상환의 시기와 방법은 S에게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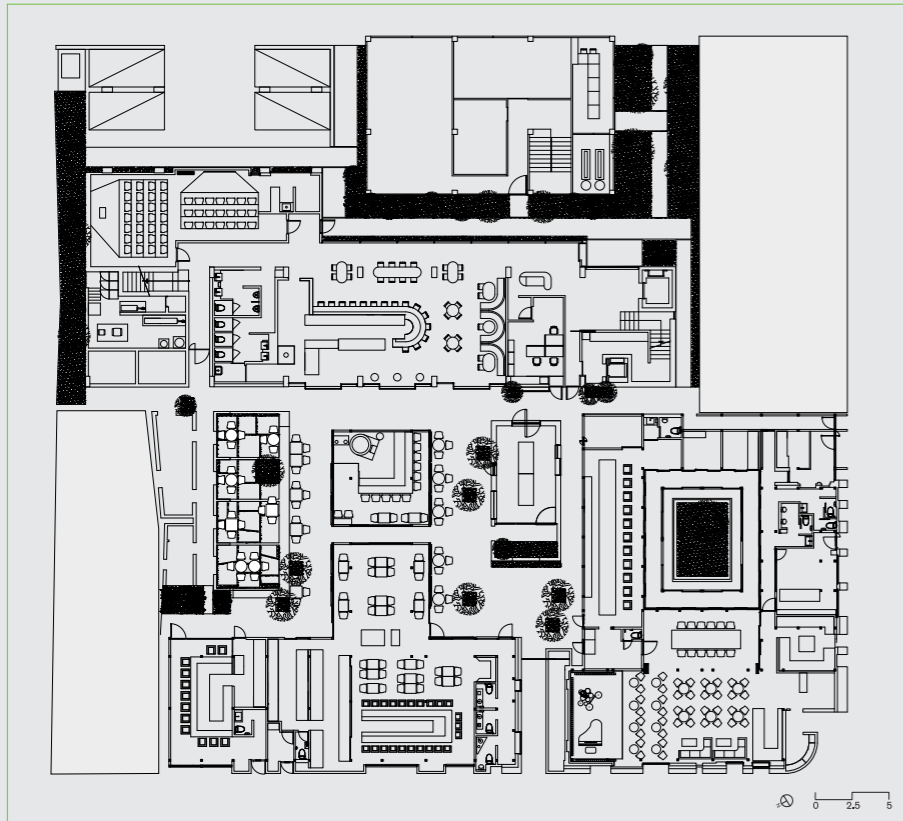
그들 중 한 명이 이 현상을 '낭만채권단'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는 군산의 전설이 되었다. 낭만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낭만적 성격보다는 지방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 의미하는 어려움과 치열함을 내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애초에 시장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어, 계획도면을 그리면서 동시에 공간의 용도와 배치를 구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나중에 대두된 호텔의 콘셉트를 설정하는 것이 전체 프로그램을 설정해 나가는 데 우선순위가 되었다. 호텔의 형식은 리터닝 고유의 것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겨지는 등급에서 자유롭게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다



©이순건축
단면도



©이순건축
1층 평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양한 타입을 적용하되, 공간구조에 적합성을 갖는 어떤 것이어야 하였다. 투숙객의 다양한 연령층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그라운드 호텔(ground hotel)이라는 형식은 전체 공간구조로부터 자연스럽게 추출된 것이다. 그라운드는 도로 면에 접한 일련의 적산가옥과 광복 후 형성된 연와조 건물들의 집합체이고, 신축될 호텔은 여기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였다. 객실의 규모는 24개로 정해졌다. 그중 절반은 그라운드에 면해 조용히 은둔하는 방들이라기보다는 그라운드의 북적거림과 호텔 방의 고요가 상호 침투하는 곳이 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건너편 도로에 접해 있어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상징적 공간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였다. 아트리움은 1.2m×8m 크기의 장방형 천창을 통해 햇빛, 눈, 비 등 자연의 여러 현상이 재현되는 외부 공간이다. 콤플렉스의 입구를 지나 그라운드로 통하고, 다시 30m의 좁고 긴 복도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거친 공간이다. 하부가 화장암으로 처리된 호텔 방들과 함께 강한 심상을 만들어 ‘기억’으로 각인되는 호텔이 된다. 재료의 내구성이 시간을 견뎌 내어 호텔들이 늘 겪는 10년 주기의 리모델링 딜레마에서 벗어나 언제나 그 모습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그라운드는 먼저 중앙에 위치한 일제시대의 창고로부터 시작한다. 다목적 공간으로 쓰일 이곳은 서쪽의 주 출입구로 진입할 때 마주하게 되는 첫 건물이다. 조적벽에 목조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원형의 마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라운드T’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파라디소90(현재 이 거리의 이름이 구영길이다)’, ‘피제리아 델 캄포’, ‘스시바 에이와(거리의 옛 이름 영화의 일본식 발음)’로 채워진다. 이들은 다시 호텔 1층의 카페테리아 겸 리셉션 공간인 ‘트레비아’와 접하게 된다. 전체 콤플렉스 중 가장 도시적 활기가 충만한 곳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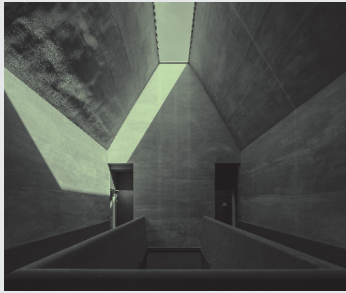
그라운드T의 북쪽으로는 과거 미군들을 접객하던 여성들이 묵던 방 4개의 연와조 건물이 있었다. 외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 건물의 방 부분을 잘라 내고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어 정원을 만들었다.

한편 동쪽으로 난 좁고 긴 골목을 통하여 높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전에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던 막힌 공간이 ‘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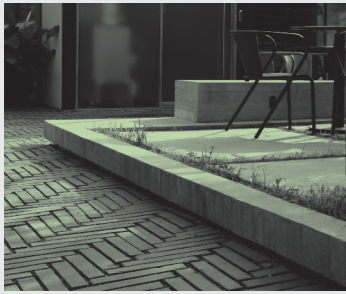
©이순건축



상 피제리아 델 캄포의 외부 공간
하 재즈클럽 머디



© 김중우



© 이순진 건축

상 호텔 아트리움의 시멘트 마감
하 헤링본 형태로 깔린 적벽돌 바닥

형 중정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고, 그 주위를 ‘재즈클럽 머디 (muddy, 군산은 매립지여서)’, ‘바 인그리드(bar Ingrid, 격자형 도시 군산의 가운데여서)’, 그리고 젤라토 숭 ‘노베오(noveo, 90의 이탈리아식 발음)’가 둘러싸고 있다.

‘모’자 중정은 주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시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 중정의 아침은 고요하다. 점심쯤이면 사람들이 젤라토를 하나씩 들고 들어와 담소를 나눈다. 또 저물녘이면 바 인그리드의 낮은 조도와 적절한 볼륨의 음악이 이곳을 채우게 된다. 주말 저녁에는 재즈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과 바의 주객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기도 한다. 가끔은 제법 규모 있는 행사가 벌어져 중정에 면한 모든 공간이 떠들썩하게 채워지기도 한다. 여러 켜와 다양한 형식의 문들은 시선과 빛, 또 공기와 음향의 제어장치로 잘 작동할 것이다.

재료

일체감점기부터 지금까지 군산에서 주로 사용되어 도시의 형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맥을 형성하는 재료를 꼽아 보았다. 적산 가옥에는 주 부재인 목조와 함께 회벽이나 타일 등이 혼재하여 사용되었고, 가끔 눈에 띄는 1930년대 모더니즘 건물들에는 미장이 많이 쓰였다. 한편 광복 이후의 건물들은 연와조가 주를 이루어 적벽돌, 타일, 콘크리트 위 도장 혹은 시멘트 미장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들을 프로젝트의 주 마감재로 삼되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새롭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예컨대 호텔의 2·3층 상부는 컬러 미장과 시멘트 미장 위 스프레이를 적용하였다. 컬러 미장은 미장 특유의 손맛을 드러내 줄 것이고, 스프레이는 미장 면에 표출된 다채로운 작업의 흔적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내 줄 것이었다. 그라운드 바닥은 적벽돌을 헤링본(herringbone)으로 깔되 줄눈의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 석분을 채워 깊이를 더하였다. 도로에 면한 목조 건물들의 전면은 붉은 색조가 강한 갈색 타일이 같은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평의 안정감과 반질반질한 타일의 물성이 강한 파사드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지붕은 적합한 기와를 찾기 어려워 아스팔트 롤을 사용하였다. 그라운드 지붕의 집합적 형상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인바, 지붕선들은 예리하

고 면은 평탄하며 질감은 거칠어야 하였다. 검은색 아스팔트 롤의 질감은 그 하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함석 처마의 질감과 대비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처마면은 절곡되어 단호함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였다.

모든 재료는 군산 시내의 어디엔가 쓰였던 것들이고, 각자의 존재감은 사용법의 차이에 의해 표출될 터였다. 소도시의 콘텍스트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의 모습, 도시형상학(urban morp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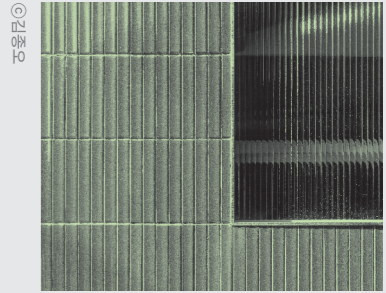
우리나라 소도시들의 모습을 도시형상학의 어휘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 형성 과정 자체가 이론적으로 성립된 도시형상학의 어휘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학문적 어휘를 빌려 구태여 규정하려는 노력 자체가 허무한 일일 것이다. 우리의 소도시들은 오랫동안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도시 맥락(urban context)이라는, 이제는 진부해지기까지 한 어휘조차도 우리의 도시 앞에서는 무력해 보인다. 그것을 형태언어로 정의하려 해도, 도시지리학으로 해명하려 해도 가닥이 잘 잡히지 않는다. 차라리 윤주선 교수가 갈파하였듯이 ‘탁류적 건축’이라거나 ‘짬뽕적 건축’이라는 표현*이 와 닿는다. 그 안에 도시의 형성 과정이 일상의 언어로 진하게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터닝 군산은 소도시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수습한 하나의 단절된 에피소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사건들이 스스로 구축한 서사들이 구체적이고 압축된 형태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만 할 뿐이다.

단절된 에피소드에서 집합적 사고로 가는 한 길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한 서술 방식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리터닝 군산에 관한 한 위에서 펼쳐진 사연들의 집합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윤주선. (2025.9.). [ESSAY] 고집 피우지 않는 도시, 군산. SPACE, 29.



외벽에 쓰인 붉은 타일